



## 평양에 다녀와서

### 왕래가 잦아질수록 긴장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윤 장 순 (사랑의 친구들 이사)

지난 8월 5일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하시는 이희호 명예회장님의 일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북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개인 자격의 방문이었으므로 대표단도 순수한 민간 인들로 구성되었고 명예회장님과 대표단 6명, 그외 수행원과 실무자를 합하여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희호 명예회장님이 북한의 어린이, 노인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 방북에는 영아원, 육아원, 아동병원, 평양산원, 양로원 등 여러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북의 준비와 지원은 사랑의 친구들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지고 갔던 선물은 의료기, 의약품, 내의, 양말 등 다양했지만 지난 몇년간 명예회장님을 비롯해 우리 사랑의 친구들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떠서 모아 놓았던 6,000개의 목도리 선물이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착부터 출발까지 그들은 명예회장님을 국빈으로 모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최고 국빈 대접으로 환대를 받았고, 아무런 제지 없이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는 우리 공중파방송 뿐 아니라 60여개의 채널이 있어 세계의 모든 방송을 여과 없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

다. 우리 대표단에 특별히 베푼 배려였지만 자기네 체제 선전의 목적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착해서 하루 지나기까지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대접과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중에는 평양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행동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친근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2001년 적십자에서 아기들의 분유 전달을 위해 금강산 온정리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평양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직항로로 단 55분이면 갈 수 있고 만나자마자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그곳이 어찌 그리도 먼 곳이었던지요! 내게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회였지만 이산가족 상봉만이라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방북을 정부 자체도 개인방문으로 내쳤지만 정치적인 걸 떠나 많은 민간인들의 왕래가 잦아진다면 남북의 긴장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북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희망의 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015년 8월, 북한에 사랑의 목도리 직접 전달

이희호 명예회장, 김성재 회장 평양의 병원, 보육원 등 방문해



사랑의 친구들은 2000년 북한을 방문한 이희호 명예회장의 초음파 진단기 기증을 시작으로 남북의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01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의류, 양말, 학용품, 수액제, 의료기기, 원단 등 5,720,850,820원에 달하는 물품을 후원해 왔다.

2010년 4월부터는 사랑의 목도리 캠페인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목도리를 만들어 2010년 10월 1,500점, 2012년 9월 2,800점을 보낸데 이어 2015년 8월 5일 이희호 명예회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목도리 6,000점을 비롯한 물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8월 5일 평양에 도착한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명예회장, 김성재 회장, 윤장순 이사, 이정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3시 평양산원, 중앙연구소를 방문했다. 평양산원은 산모들과 여성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2000년 사랑의 친구들이 지원했던 초음파진단기를 보여주었다. 이희호 명예회장을 비롯한 일행은 입원 환자들도 직접 만나 입원한 이유 등을 묻고 격려했다. 항공기에 실리지 못해 도착하지 못했지만 사랑의 친구들은 그곳에 최신 인큐베이터 5대를 보낼 예정이다. 이어서 평양산원 건너편에 위치한 평양 아동병원도 함께 방문했다. 이 병원은 어린이 전용병

원으로 병원 내에 복도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벽화가 그려진 것이 인상적이다. 8월 6일에는 평양 애육원과 평양보육원,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하여 개원 예정인 평양 양로원을 둘러보았다. 특히 애육원에서는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어린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환영해주었다.

사랑의 친구들은 북한 어린이들이 겨울추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지난 6년간 800여명의 봉사자들이 목도리 뜨기에 참여하였고 2010년 10월 1천 5백점, 2012년 9월 2천 8백점에 이어 이번에 6천점의 목도리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한국제약협회(대웅제약, 동아ST, 명인제약(주), 보령제약(주), 삼진제약(주), (주)녹십자, (주)유한양행, (주)종근당, (주)휴온스, 한미약품(주), JW중외신약주식회사, JW중외제약주식회사)에서 700박스에 달하는, 싯가로는 3억여원이 넘는 의약품을 지원했고, (주)스타키코리아의 보청기 200점과 쌍방울의 아동속우투 6천점, 실버텍스에서 양말 1만켤레, 부곡장로교회에서 후원한 양말 6천켤레를 선물로 전하고 엠블런스를 지원했다. 그리고 (사)대한의사협회,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후원금을 기부했다.



지난 6년간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783명의 개인, 60개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강경숙·강기욱·강석훈·강순원·강신영·강영남·강예은·강은영·강익수·강정수·강주동  
 강진희·강현숙·강혜옥·강혜정·강희정·경은지·고재호·고정희·고종훈·고현정·곽태형  
 구교연·구본철·구윤혜·구자민·권기혜·권도영·권명숙·권미화·권소희·권수정·권유나  
 권일선·권재은·권주미·권지혜·권효영·김영·김옥·김웅·김훈·김기빈·김기영  
 김강선·김강애·김경환·김경희·김고은·김귀자·김규리·김근태·김금옥·김기선·김기은  
 김기창·김기현·김남희·김내숙·김노아·김능호·김다미·김다은·김덕규·김동규·김동영  
 김두현·김명경·김명익·김명준·김명희·김미경·김미선·김미애·김미영·김미정·김미현  
 김민정·김민희·김민희·김백진·김범석·김범철·김병규·김병길·김병민·김병준·김보라  
 김봉수·김상미·김상진·김서용·김선영·김선웅·김선진·김성범·김성수·김성재·김세정  
 김세현·김소유·김소윤·김수경·김수민·김수정·김수지·김순하·김승혜·김아영·김양남·김연미·김연수·김영란·김영미·김예원·김은유·김왕수·김유락·김유빈·김유정  
 김유진·김윤환·김은담·김은영·김은정·김은주·김은채·김은하·김은희·김은영·김이주·김인영·김일영·김일민·김지현·김재순·김재원·김재윤·김재현·김재훈  
 김정순·김정식·김정애·김정열·김정윤·김정하·김정현·김정훈·김정희·김종호·김주미·김주순·김주희·김준석·김지선·김지수·김지현·김지혜·김진묵·김진식  
 김진영·김진주·김진호·김진희·김태동·김태자·김필주·김학복·김한별·김한아·김희미·김현규·김현숙·김현우·김현일·김현자·김현정·김현중·김현주  
 김형선·김형주·김혜영·김혜원·김혜정·김혜진·김효영·김홍남·김희수·나상화·나여혜·나민경·나성은·남여혜·남영희·남정선·남준태·남윤화·남혜경·능운  
 라정인·리호연·류동완·류선익·류선하·류순애·류연중·류진현·마영훈·마정민·문경수·문소영·문수현·문지영·문지현·문지현·민영민·민영기·민지선·민현기·박기현·박경숙  
 박광수·박래준·박명화·박무진·박문갑·박미남·박미향·박민지·박민희·박병중·박병렬·박상희·박세미·박서인·박선영·박선하·박수자·박수현·박승률·박신규·박양순  
 박영숙·박영채·박예린·박예찬·박예희·박용목·박유나·박유미·박유정·박은경·박은석·박은선·박은수·박은주·박재숙·박재욱·박재원·박재철·박정연·박정우  
 박정일·박정희·박종경·박종민·박주연·박지수·박지연·박지영·박지우·박지현·박지홍·박진영·박찬열·박태경·박필규·박한빈·박해민·박해교·박효민·박희경·박희양  
 박희영·방시정·방은진·방지연·배성오·배외숙·배용규·배은영·배주영·백봉현·백상훈·백순수·백소희·백윤희·백지원·백지현·백진숙·변성영·변인식·변지석·변진숙  
 서명옥·서승식·서순현·서윤선·서자영·서정미·서종심·서주연·서주희·서진희·서재현·서태진·서현정·서현주·서효주·석장원·성현·성낙진·성인숙·성지영·성지인  
 성효선·손동우·손명화·손병국·손수진·손연희·손옥임·손정숙·손철락·손현주·손호은·송산·송현·송경선·송기복·송영림·송수희·송예은·송요선·송우섭·송원섭  
 송유미·송은주·송주숙·시정선·신경영·신경혜·신기호·신대성·신명자·신보민·신선희·신영주·신현숙·신정국·신진희·신정주·신희성·심선일·심수정·심원용  
 심해성·안민영·안봉숙·안성자·안현경·안혜진·양동현·양득우·양승용·양애림·양용탁·양이준·양민자·양정은·어미숙·엄수현·엄조룡·연지혜·연희진·오기운·오기운  
 오기은·오경주·오선성·오수경·오수민·오수지·오유림·오은정·오준환·오태인·우시화·우애숙·우연경·우지민·우지연·원소연·원소희·원현정·유영선  
 유민해·유영주·유은선·유재성·유중현·유지민·유지호·유형경·윤광수·윤광희·윤미경·윤석기·윤송희·윤순연·윤여일·윤영민·윤영정·윤주영·윤지애·윤현봉·은수현  
 은지순·이관·이옥·이윤·이기현·이강은·이경숙·이기선·이기원·이길수·이남경·이남현·이남희·이다연·이대비·이동민·이매남·이명영·이명숙·이명희·이미경  
 이미영·이미정·이민정·이민주·이민호·이병관·이상권·이상옥·이상일·이상혁·이석기·이석배·이성규·이성림·이성애·이성희·이소영·이소희·이소희·이수빈·이수연  
 이수인·이수현·이순례·이승섭·이승정·이승한·이승희·이아정·이애숙·이여진·이연수·이영주·이옥희·이윤주·이원선·이유진·이윤선·이은경·이은미·이은범·이은주  
 이은지·이은진·이재원·이재윤·이재은·이재혁·이재현·이정균·이정순·이정식·이정원·이정민·이정철·이정화·이종욱·이종태·이주영·이주은·이주철·이주호·이준관  
 이지선·이지연·이지영·이지혜·이지은·이지은·이지혜·이진용·이진희·이철현·이철호·이춘우·이춘형·이춘희·이태민·이태호·이한필·이한필·이한해·이해남  
 이해석·이해선·이향미·이향아·이현영·이현석·이현주·이형규·이혜경·이혜나·이혜숙·이희찬·이희환·인혁·인재근·임건자·임근아·임동수·임명선  
 임사랑·임선애·임선영·임성희·임수현·임수현·임영숙·임영진·임옥영·임옥자·임은영·임은희·임재영·임정국·임지연·임하나·임한나·임효진·장경애·장경태·장동욱  
 장문호·장민지·장보선·장보원·장상준·장세제·장소경·장유진·장윤수·장윤진·장정숙·장춘근·장태연·장태용·장현욱·장희진·전덕순·전미미·전상록·전상삼·전세진  
 전수민·전영주·전정옥·전정은·전제권·전채희·전태선·전현정·전현주·전현준·전현재·전혜리·정희·정금호·정기정·정민지·정봉재·정삼순·정선희·정성민·정성현  
 정세희·정슬기·정영순·정예지·정월음·정유석·정유정·정윤숙·정은숙·정은혜·정민용·정말미·정재영·정재욱·정주현·정지석·정지희·정지희·정태완  
 정향진·정현주·정혜성·정혜진·정희국·정희선·정희진·정희경·정희윤·조경준·조관희·조민기·조문주·조민자·조민호·조봉현·조상원·조수경·조아라·조연진  
 조영경·조용란·조용태·조원주·조유진·조은솔·조은희·조정숙·조종환·조주희·조철명·조평석·조현진·조형주·조홍식·주나영·주민성·주민자·주상희·주선아·주수연  
 지경한·지영현·지윤혜·지은성·진말숙·진영섭·채미영·채윤정·채은정·최민철·최민혜·최정현·최준수·최종욱·최중우·최주필·최준희·최준원·최지현·최진이·최태현  
 최한설·최현영·최혜영·최혜은·추한동·하누리·하미선·하수현·하어용·하정래·한기현·한경선·한광진·한권우·한금순·한금영·한민규·한상욱·한선희·한소연·한승주  
 함연주·하남경·하연정·하영은·하오성·하윤성·하영영·하자영·하진명·현상원·현수지·호은림·홍대영·홍성규·홍승희·홍연택·홍윤성·홍은영·홍지선·홍지현  
 홍지훈·홍준희·홍혜민·홍혜지·황경화·황민지·황여준·황은정·황은주·황주원·황희동·황현주  
 Ratzer가족·5.7가족·강남교회·강북삼성의료재단·건위교회·공능교회·광주점자도서관·남원제일교회·다비다모자원·도봉청소노동자실·동교동뜨개모임·동부교회·미래회  
 삼성SDI(구미·수원·여수·오창·의왕)·삼성물산(주)·삼성전자(구미자원봉사센터·구미시업정)·삼성토털(주)·서평지역아동센터·석곡지역아동센터·성리교회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봉사스쿨'·아름다운평지지역아동센터·영신유치원·용광교회·인사모·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전남농과후교실·전주신흥교회  
 제일모직(본사·서울·구미·오창·의왕)·제일모직(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탄현중학교 2학년 3반·평택장로교회·한빛교회·화랑꿈나무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강원연합회·경기남연합회·경기연합회·경북연합회·구미연합회·군산연합회·대전연합회·서울남연합회·서울동연합회·서울북연합회  
 ·익산연합회·인천연합회·전북동연합회·전북연합회·충남연합회)

# 산에서 들에서 뛰고 뒹굴고 소리질러!!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후원한 여름 캠프에 어린이 1,340명 참여

**서울** 친구야~~노을자 8월 3일~5일

- ★ 충북 음성군 청소년수련관 7개 기관 160명 어린이 참여
- ★ 단 하루라도 스마트 폰을 놓고 신나게 놀아보는 시간! 창조성, 유연성, 적응력, 협동심을 길러주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핸드폰과 컴퓨터로부터 해방되어 여럿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는 캠프
- ★ 서울 동대문구방과후연합회



**인천 계양** 떠나자!!! 산으로~바다로~ 8월 12일~14일

- ★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변 15개 기관 333명 어린이 참여
- ★ 산과 바다가 어울려 절경을 이루는 낙산해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미션 임파서블! 학교에서도 센터에서도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은 어린이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 먼저 다가가는 법을 배우며 결속력을 다져본다.
- ★ 인천 계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주** 7년쿨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가치 7월 27일~29일



- ★ 전북 완주군 DSM회심연수원 7개 기관 168명 어린이 참여
- ★ 7개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7가지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맛과 멋과 향을 한자리에서 경험해보며 2박3일간 함께 뛰어놀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전북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내 "희망의 무지개"

**함안·의령** 힐링 힐미 썸머페스티벌 8월 10일~12일



- ★ 경남 거제시 토형도예촌 체험학교 7개 기관 163명 어린이 참여
- ★ 8월 한여름 더위를 잠시 잊고 황도팩, 갯벌체험 등 자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보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하며 진정한 휴식을 즐겨본다.
- ★ 경남 함안/의령 함의연

**천안** 아동기 정신건강 전통놀이로 행복해지기<아!신통해 캠프> 8월 12일~14일



- ★ 충남 부여군 자연미술학교 6개 기관 150명 어린이 참여
- ★ 항상 위축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과 전통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내 안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 ★ 충남 천안 아동건강네트워크

잘 놀겠습니다

**서울** 하늘땅 별땅, 신나는 여름 들살이 8월 3일~5일

- ★ 전북 장수군 하늘 내 들꽃 마을 5개 기관 86명 어린이 참여
- ★ 도시에서 벗어난 어린이들이 전래 놀이, 농작물 수확, 계곡 놀이 등을 통해 건강한 삶에 대해 배워보고, 또래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서로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 본다.
- ★ 서울 강북구공부방협의회 - 소규모 아동센터 모임



**광주** 한뼘키우기(step by step) 8월 10일 ~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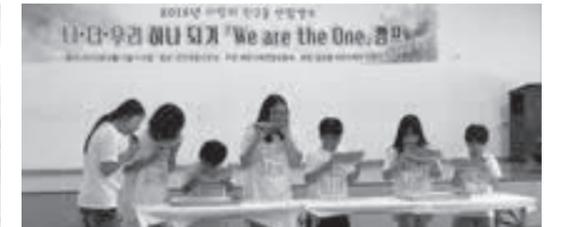
- ★ 전남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14개 기관 113명 어린이 참여
- ★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두부, 인절미 만들기 체험,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어 물살을 헤쳐나가는 레프팅 체험 등을 통해 학교 이외의 여가활동이 거의 없는 어린이들에게 협동심은 물론,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캠프
- ★ 광주 홀리트리교육지원센터



**익산** 나·너·우리 하나 되기 'We are the One' 캠프 8월 11일~13일



- ★ 전북 진안군 대광수련원 7개 기관 112명 어린이 참여
- ★ 센터라는 작은 우리보다는 단체라는 큰 울타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본다.
- ★ 전북 익산 해찬나래연합공동체



**부천** 오! 정다운 오케스트라 친구들의 재능키움 시간여행 8월 12~14일

- ★ 제주 제주시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9개 기관 55명 어린이 참여
- ★ 저소득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오!정다운 오케스트라'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연습과 합주를 통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 향상 캠프! 또한 제주지역의 오케스트라 어린이들을 만나 함께 악기를 연주해 보며 서로 소통한다.
- ★ 경기 부천오정다운네트워크



# “나는 서울에 와서 신나고, 나는 서울에 처음 와본다”

## 전남 장성지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2박3일 신나는 서울체험

‘서울초청 행사’는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 나들이가 힘든 농·어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로 해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성숙영)이 후원해왔다. 올해는 공모형태로 서울방문 신청을 받아 전남 장성의 영천지역아동센터, 예크지역아동센터, 황룡스마팅지역아동센터, 진원동지역아동센터 어린이 90명이 서울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하고 싶은 일들로 2박 3일의 일정을 꾸렸다.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종이문화재단에서 모여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는 종이문화재단의 노영혜 이사장이 어린이들에게 종이박물관 견학과 종이접기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후원하고, 직접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종이박물관에 이어 어린이들이 찾은 곳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처음으로 와보는 국회의사당 내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쌓았다. 둘째날은 본격적인 서울나들이 시간. 국립중앙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남산타워, 경복궁과 청계천, 서울광장 등 가봐야 할 곳이 많은 날이다. 박물관을 찾아 책에서만 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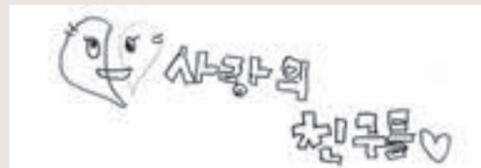
던 유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역사의 생생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는가 하면 오후에는 서울의 중심부인 청계천, 경복궁, 광화문 거리를 걸어보고,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N타워를 찾아 또 다른 추억을 쌓았다.

마지막 날은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놀이동산이 기다리고 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거운 마음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온통 신기하기만 한 놀이기구와 퍼레이드 행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순간들을 사진에 담으며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랑의 친구들이 2000년부터 진행해 온 지방 어린이 서울초청행사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해마다 행사를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재

단법인 종이문화재단도 함께 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서울 여행을 선물했다.



사랑의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저 유민이에요. 서울캠프를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안 가 본 곳도 가고 신기하고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먼저 수요일에는 종이나라재단에 가서 종이로 만든  
물건도 보고 배웠어요. 국회의사당에는 위대한 사람,  
대통령 등이 있었어요. 목요일에는 많은 곳을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피곤했지만 재미있었어요. 금요일에  
롯데월드에서 가족선물도 사니 뿌듯하고 재미있었어  
요. 다음에 또 오게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5년 4월 20일  
유민 올림



저는 영천지역아  
동센터에 다니는 4  
학년 김혜선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종이나라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에  
서 색종이로 접은 여  
러 가지를 보고 색종  
이 접기 체험을 했습  
니다. 나도 배워서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경복궁 갔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돌아다니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산을 가져가서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롯데월드는 너무나 재미있  
고, 또 가고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다려지는 영어시간! 영어가 제일 쉬워요”

### 미래회가 후원하는 34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52개 기관 참여

2007년부터 미래회(회장 박지영)의 후원으로 사교육의 기회가 없어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어린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사랑의 친구들에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 CD플레이어, 동기부여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진행기간은 1년 동안 3개월씩 4차례 진행되며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을 결정한다. 2015년 6월~8월 34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52개 기관 326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졸업생들의 좋은 본보기를 떠올리며 오늘도 "You can do it!!"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손정순 자원봉사자

돌이켜보니 선민과의 만남이 참으로 긴 세월이다. 이제 대학원생이 된 큰아들의 선교원을 찾다가 작지만 알찬 커리큘럼에 흠뻑 반해 시작된 것이기에 더욱 귀한 인연이 되었다. 유치원생부터 가르치며 지금에 이르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다. 게다가 실력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 절로 어깨춤이 추어진다.

가장 인상에 남는 아이들은 벌써 훌쩍 커서 중학생들이 된 예정이, 하빈이, 찬영이다. 물론 수업중에 까불어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K.T가 주최한 인천시

에 있는 공부방 학생들 중 영어달인 100명에 속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들과 다름없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산 증인들이다. 좋은 학생과 좋은 교재가 있었기에 교사인 나는 덩달아 좋은 교사가 되었다. 오늘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선배들의 좋은 본보기를 떠올리며 "You can do it!!"이라고 외쳐본다.



“안해요” “싫어요”에서 “오늘 뭐해요?”까지

등둔지역아동센터 김현미 자원봉사자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과의 첫 대면부터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까?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시작된 영어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공부라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인지 “안해요.” “싫어요.”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기초학습 국어, 수학 공부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해야 하고 또 영어 공부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벅찼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관심을 준 만큼, 사랑을 준 만큼 자란다고 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마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먼저 다가와 “이게 뭐예요?”하면서 질문도 하고, 영어교실을 통해 파닉스와 알파벳을 익혀 나가며 거기에 따른 단어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와 챗트를 통한 신나는 영어학습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영어 학습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평가 인증제 테스트는 한번이면 되지요

열매지역아동센터 박선영 교사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지원받게 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강화도에서 영어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 몇 해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드디어 제가 염원하던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었고 자원봉사선생님의 열정으로 아이들의 실력은 조금씩 향상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꾸준히 참여한 아동들 중 현태와 지영이, 태양이는 영어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영어자원봉사선생님이 오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 계셔서 그런지 학교

에서 영어 한 단원씩 끝나면 영어 평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겨우 통과했던 아이들이 근래에 들어 한 번에 바로 통과하고 와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3년 이상의 영어교육의 효과가 요즘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속적인 영어 학습이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보내 주시는 미래회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한격려와 반복, 영어올림중 극복의 지름길

극동지역아동센터 신경이 교사

극동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 교실'이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아이들과 직접 몇 년 동안은 수업도 같이 하였는데 '영어 올림중'에다 마음이 없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은 출석부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무한한 반복과 격려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될 때까지 서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1년에 한번 즐거운 캠프를 통해 많은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나 발표하는 순간에는 쑥스러워하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았으며 영어에 재미와 자신감을 얻은 친구들이 다른 과목에도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영어 올림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음 속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

한국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해마다 바자 준비



사랑의 친구들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어린이재단 총회장을 맡고 있는 성숙영입니다.

IMF 위기 이후로 조국 한국이 경제적 불황의 늪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며 어린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온국민이 시름에 젖어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현 명예 이사장이신 방숙자님을 비롯한 몇몇 어머니들이 분연히 일어나 조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사명감에 그 자리에서 기금을 모아 한국에 전달한 것이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 7월, 글로벌어린이재단(GLOBAL CHILDREN FOUNDATION)이 창립되고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GCF는 그간 미국 16개 주를 비롯해 캐나다, 한국, 홍콩, 일본 등 20개 지부로 지경을 넓히며 4,000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공히 유엔이 인정하는 국제적 자선단체로 성장해, 지금은 30여개 국의 30여 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0만 달러의 구호기금을 현지로 보낸바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역군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며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매년 가을 서울의 이화여고에서 열리는 한국의 불우

아동을 위한 기금 모금 바자도 어언 17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GCF에서는 '사랑의 친구들'과 협력하여 해마다 풍성한 바자를 열어 '엄마의 사랑'을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바자 후 어린이들의 공부방과 장애우를 위한 소망의 집 등을 방문하며 많은 것을 배우며 느끼고 있습니다. GCF와 '사랑의 친구들' 그리고 바자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멋진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올해도 약 70명의 GCF 회원들이 열정을 갖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 모으며 바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홍보해 주시고 풍성한 바자가 되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갖고 이세상에 불우한 어린이가 한명도 없는 그날까지 서로 노력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영**  
(글로벌어린이재단 총회장)

### 제36차 정기이사회



사랑의 친구들 제 36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8월 24일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5년 상반기의 재정 및 사업보고가 있었다. 사업보고로는 이희호 명예회장, 김성재 회장, 윤장순 이사, 이정원 사무총장이 8월 5일 ~ 8일 북한을 방문한 내용과 함께 연합캠프 지원, 서울초청행사,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사랑의 간식나누기, 아동장학금후원 등 사업보고로 이어졌다. 이어진 하반기 사업에 대한 토의에서는 10월 17일 ~18일 열리는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내년 설을 앞두고 진행될 예정인 2016 사랑의 떡국나누기에 대해서는 행사 일정을 2016년 2월 2일(화)로 결정했다.

### 세고비아 기타 지원 그리고 그 후



2014년 12월, 주식회사 상우악기에서 기타 82대를 후원해왔다. 기타를 배우고 싶지만 악기가 없어 배우기 힘들었던 어린이들, 낡은 기타로는 더 이상 연습이 어렵지만 기타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17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받은 기타를 골고루 나누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는 재미난 기타 수업이 한창이다.



"까팔레나 매력있어"

전농방과후교실  
신효은

선생님께서 처음 고학년 친구들중 다섯명만 기타수

업을 하신다기에 평소 오빠가 기타를 치던 모습을 보며 꼭 배워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나도 선생님께 신청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코드를 익힐 땐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선생님께서 신나고 즐거운 곡으로 연습을 하자시며 악동뮤지션의 '매력있어'를 가르쳐주셨다. 나는 집에 가서도 오빠 기타로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 덕분인지 다음 수업에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

5,6학년 아이들로 수업을 해서 그런지 서로 경쟁을 하며 열심히 연습을 했고 '매력있어'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우 근사하게 칠 수 있게 되어 두 번째 곡인 '까팔레나'를 배웠다. 이 곡은 첫번째곡처럼 신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곡에 도전을 한다는 게 좋아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 점점 기타에 자신이 있어지려 할 때 기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기타 선생님과 '연가'를 배우며 또 다른 코드를 익히는 게 힘들어 손가락이 아프다며 투정도 부렸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4주가 끝날 때쯤엔 '연가'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 더욱 신나고 재밌게 열심히 연습을 해 가을에 학교에서 하는 발표회 때 그동안 배운 솜씨를 뽐내고 싶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의 문화초청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이 함께 후원한 문화공연 초청에 반석방과후교실, 열린방과후교실, 임학지역아동센터, 전농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샛마루공부방,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22명이 함께 했다. 이번 초청에 초대받은 어린이들은 생동감 넘치는 공연현장에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뮤지컬 - 방귀대장 뽕뽕이 (8월 18일~19일)



어린이 뮤지컬로 재탄생한 방귀대장 뽕뽕이. 즐거운 노래와 춤으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뮤지컬은 특히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추억을 선사했다.

'금난세의 실내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3월 25일)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이자 음악가인 금난세의 인생과 음악여정을 에세이 형식의 토크와 클래식 실연으로 함께한 실내악 토크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이 조금 낯설었던 어린이들에게도 소통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돌스 메무아 - 프랑스 궁의 성대한 축제' (5월 31일)

문학과 미술에 있어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재현한 음악극 '돌스 메무아'.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음악극이라는 형식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악과 문화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방귀대장 뽕뽕이를 보고

오늘 연극을 보았을 때 재미가 조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재미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웃길 바라는 그 마음과 우리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 전 그런 것을 그 공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또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울면 위로해 주고 내가 웃으면 주변에서 같이 웃어주는 그런 것. 전 지금 너무 기쁩니다. 저의 이 기쁨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열린방과후교실 이연주

사랑의 간식나누기

기내에서 개봉되지 않고 나오는 과자류, 라면, 초콜릿 등을 모아 간식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2001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상반기에는 천안지역 3개 기관에,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1개 기관과 전북 전주 지역의 4개 기관 어린이 145명과 간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2015년 하반기 지원 기관>

로템나무지역아동센터, 반석방과후교실, 반석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한누리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형	김문규	김용주	김홍기	박 영	박정훈	성현정	오영란	이은정	정재인	최병철	황정희
경욱호	김미애	김용현	김홍배	박경숙	박정희	송도순	오재환	이종욱	정정례	최지은	
김 솔	김병준	김인섭	김홍익	박동찬	박종대	송석호	오차환	이철우	조기제	최해경	
김 향	김복선	김장곤	김홍주	박상지	박진희	송요선	윤상현	이현승	조남철	최해선	
김경돈	김상우	김정달	김홍진	박상호	박필규	송현석	윤장순	인재근	조성민	최혜원	
김경란	김소민	김종량	남기현	박용상	방병찬	신선련	이기정	임지선	조주영	하원호	
김경희	김수정	김지연	남창우	박우용	배민영	안종길	이순례	임형국	차수연	하윤태	
김교은	김시은	김지은	노영혜	박윤희	배장훈	안창민	이승희	임형균	차순걸	홍진아	
김남훈	김연환	김철웅	노윤화	박정서	배주영	양미선	이영옥	정영화	최동균	홍진표	
김도균	김영남	김한정	노지혜	박정해	성인숙	오경임	이은경	정우상	최병권	황경민	

(명)삼하사 • (사)대한의사협회 • (주)연합뉴스 • CAFE LVI • 글로벌어린이재단 •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미래회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 유라 •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 한양대

\*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대한의사협회,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물품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화장품)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식회사(의약품)
김주희(사무집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식회사(의약품)
대웅제약(의약품)	조남만(백화점 상품권)
대한항공(기내식)	(주)녹십자(의약품)
동아ST(의약품)	(주)스타키코리아 (보청기)
명인제약(주)(의약품)	(주)실버텍스(양말)
보령제약(주)(의약품)	(주)쌍방울(아동내의, 체육복)
삼진제약(주)(의약품)	(주)유한양행(의약품)
아시아나항공(기내식)	(주)종근당(의약품)
외환은행 나눔재단(문화공연 초청)	(주)휴온스(의약품)
의왕 부곡장로교회(양말)	한미약품(주)(의약품)

- \* (주)스타키코리아에서 후원받은 보청기는 북한 어린이 돕기에 지원하였습니다.
- \* (주)실버텍스, 의왕 부곡장로교회에서 후원받은 양말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지원하였습니다.
- \* 12개 제약회사에서 후원받은 의약품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지원하였습니다.
- \* (주)쌍방울에서 후원받은 아동내의와 체육복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지원하였습니다.
- \* 조남만 회원이 기증하신 백화점 상품권은 2015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 \* 김주희 회원이 기증하신 책상, 테이블, 의자 등 사무집기는 전주 한누리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였습니다.

연락처 등이 누락돼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팀 : 734-4945 ~ 7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9길 10 (옥인동 47-483)



# 사랑의 친구들이 '결식아동돕기 열여덟번째 바자'를 엽니다

1998  
~ 2015



2015년 10월 17일(토)~18일(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 \*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해외 특산품!
- \* 생활용품 빅마켓!
- \*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농산품!
- \*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한데 모아 아나바다 장터!
- \* 따끈따끈 먹거리 장터!
- \* 사회저명인사들의 기증품 경매!
- \* 질 좋은 생활용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보세요!

- 후원 : 글로벌어린이재단, KEB하나은행
- 문의 :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 (02)734-4945~7

※ 바자의 수익금은 소외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